

광주세계수영대회 출전국가 '평화의 물결 격전지' 입성

조직위, 광주송정역·광주공항 통해 들어온 선수단 환영행사로 맞아
과테말라·스위스 등 여정 풀어...오늘 그리스·쿠바 등 50개국 도착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9일 각국의 출전 선수들이 격전지 광주로 입성한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등을 통해 선수단이 대거 들어옴에 따라 대대적인 환영행사로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송정역을 통해 이날 낮 12시께 과테말라 등 7개국 선수단이 입성했다. 환영단의 풍물패들은 선수단 도착에 앞서 풍물공연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전국가 국기와 태극기, FINA 깃발 등을 흔들며 환영했다.
이어 스위스 선수단 18명도 KTX를 이용해 광주송정역에 받을 뒀다.
오후 4시47분과 8시23분에도 그리스 등 14개국, 남아프리카 등 11개국

이 180여명의 선수들이 광주에 도착해 수영대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적도기니 등 5개국 선수단 37명은 이날 오후 4시50분, 5시 광주공항을 통해 입성해 여장을 풀었다.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0일에는 마카오, 카자흐스탄, 그리스, 쿠바 등 50개국 선수단 200여명이 광주공항과 광주송정역을 통해 격전지에 입성한다.

다.
조직위 관계자는 "긴장하고 있는 세계수영대회 참가국 선수들이 풍물소리를 듣고 잠시 긴장을 내려놓고 즐기는 것 같다"며 "환영행사를 통해 광주의 첫 인상을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광주와 여수에서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대회는 경영·다이빙·아티스틱스위밍·하이다이빙·수구·오픈워터 6개종목이 펼쳐진다.
출전국가와 선수는 194개국, 2639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서은홍 기자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막을 사흘 앞둔 9일 광주 광산구 KTX광주송정역에서 스위스·프랑스 선수단을 맞이하는 환영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풍물패가 선수단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 사물놀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강진 연꽃단지 지난 9일 강진군 강진을 보은산자락 V-랜드 2ha 면적에 5000개를 심어 조성한 연꽃단지가 비람에 하늘거리는 백련과 홍련전치로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주여성 폭행 재발방지·근본대책마련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최근 영암에서 발생한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에 대해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이주 여성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12일 전남의 새로운 천년 비전으로 선포할 '전남형 블루이코노미'가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모든 실국에서 힘차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남형 블루이코노미는 비교우위에 있는 바다, 섬,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블루자원과 수천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전남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전략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블루 에너지', 남해안 신성장 광벨트를 구축하는 '블루 투어',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구축하는 '블루 바이오', 미래형 운송기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블루 트랜스포트', 은퇴 없는 건강관광 미래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블루 시티, 5가지'라고 제시했다.

신봉우 기자

김 지사는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담으로 북미가 3차 회담을 위해 접촉하고 있고 남북 관계도 이와 연계해 큰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남북 협력기금도 늘리고, 북측과의 대화 창구도 확대해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

"이주 여성 전남서 행복한 삶 누려야"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모든 실국 힘찬 추진"

권대회와 관련해 김 지사는 "여수에서 오픈워터 수영대회가 열리게 돼 광주와 전남이 공동 개최한다는 생각으로 선수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대회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특히 '글로벌 관광 전남'을 알릴 절호의 기회인 만큼 관광, 숙박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음식물과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시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광주·전남 내일까지 장마 전선 영향...최대 40mm 비

초속 10m 안팎 강풍 부는 지역도 있을 듯...예상보다 강수량 늘어날 수도

광주·전남지역이 10일 오전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기

압골을 타고 이동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0일 새벽부터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비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나 11일 오전이면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11일까지 광주·전남에는 10~40mm

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서는 초속 8~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장마 전선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예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무안 **제23회** The 23th Muan Lotus Festival

연꽃축제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

2019. **7.25.(목)** ▶ **7.28.(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주최 / 주관 : 무안군 /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